

이용대-정재성 獨 오픈 정상 스매싱

태극전사 후배 김기정-김사랑 조 2대1 꺾어

女복식 결승 하정은-김민정 조 0대2 패

이용대-정재성(이상 삼성전기)이 2011 독일오픈 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 남자복식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용대-정재성은 7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뮌헨 안데어루르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태극전사 후배' 김기정(원광대)-김사랑(인하대)을 상대로 2-1(21-19 18-21 21-11) 신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세트에서 이용대-정재성은 20-15에서 내리 4점을 내주며 20-19까지 추격을 당했지만 힘겹게 승리를 따내며 앞서갔다.

하지만 이용대-정재성은 2세트에서 17-17까지 치열한 시소게임 끝에 연속 3점점하

고 나서 무너지며 18-21로 패해 승패의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3세트에 나선 이용대-정재성은 관록을 바탕으로 12차례 스매싱 공격을 성공하며 21-11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여자복식 결승에 나선 하정은(대교운높이)-김민정(전북은행)은 후지 미즈 키-카이와 레이카(일본)에 0-2(6-21 14-21)로 완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독일 대회를 마친 남자 대표팀은 영국 버밍엄으로 이동해 8일부터 치러지는 2011 전영 오픈 프리미어 슈퍼시리즈에 출전한다.

하지만 이용대-정재성은 2세트에서 17-

17까지 치열한 시소게임 끝에 연속 3점점하

고나서 무너지며 18-21로 패해 승패의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3세트에 나선 이용대-정재성은 관록을 바탕으로 12차례 스매싱 공격을 성공하며 21-11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여자복식 결승에 나선 하정은(대교운높이)-김민정(전북은행)은 후지 미즈 키-카이와 레이카(일본)에 0-2(6-21 14-21)로 완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독일 대회를 마친 남자 대표팀은 영국 버밍엄으로 이동해 8일부터 치러지는 2011 전영 오픈 프리미어 슈퍼시리즈에 출전한다.

하지만 이용대-정재성은 2세트에서 17-

17까지 치열한 시소게임 끝에 연속 3점점하

고나서 무너지며 18-21로 패해 승패의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3세트에 나선 이용대-정재성은 관록을 바탕으로 12차례 스매싱 공격을 성공하며 21-11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여자복식 결승에 나선 하정은(대교운높이)-김민정(전북은행)은 후지 미즈 키-카이와 레이카(일본)에 0-2(6-21 14-21)로 완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독일 대회를 마친 남자 대표팀은 영국 버밍엄으로 이동해 8일부터 치러지는 2011 전영 오픈 프리미어 슈퍼시리즈에 출전한다.

하지만 이용대-정재성은 2세트에서 17-

17까지 치열한 시소게임 끝에 연속 3점점하

고나서 무너지며 18-21로 패해 승패의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3세트에 나선 이용대-정재성은 관록을 바탕으로 12차례 스매싱 공격을 성공하며 21-11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여자복식 결승에 나선 하정은(대교운높이)-김민정(전북은행)은 후지 미즈 키-카이와 레이카(일본)에 0-2(6-21 14-21)로 완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독일 대회를 마친 남자 대표팀은 영국 버밍엄으로 이동해 8일부터 치러지는 2011 전영 오픈 프리미어 슈퍼시리즈에 출전한다.

하지만 이용대-정재성은 2세트에서 17-

17까지 치열한 시소게임 끝에 연속 3점점하

고나서 무너지며 18-21로 패해 승패의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3세트에 나선 이용대-정재성은 관록을 바탕으로 12차례 스매싱 공격을 성공하며 21-11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여자복식 결승에 나선 하정은(대교운높이)-김민정(전북은행)은 후지 미즈 키-카이와 레이카(일본)에 0-2(6-21 14-21)로 완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독일 대회를 마친 남자 대표팀은 영국 버밍엄으로 이동해 8일부터 치러지는 2011 전영 오픈 프리미어 슈퍼시리즈에 출전한다.

하지만 이용대-정재성은 2세트에서 17-

17까지 치열한 시소게임 끝에 연속 3점점하

고나서 무너지며 18-21로 패해 승패의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3세트에 나선 이용대-정재성은 관록을 바탕으로 12차례 스매싱 공격을 성공하며 21-11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여자복식 결승에 나선 하정은(대교운높이)-김민정(전북은행)은 후지 미즈 키-카이와 레이카(일본)에 0-2(6-21 14-21)로 완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독일 대회를 마친 남자 대표팀은 영국 버밍엄으로 이동해 8일부터 치러지는 2011 전영 오픈 프리미어 슈퍼시리즈에 출전한다.

하지만 이용대-정재성은 2세트에서 17-

17까지 치열한 시소게임 끝에 연속 3점점하

고나서 무너지며 18-21로 패해 승패의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3세트에 나선 이용대-정재성은 관록을 바탕으로 12차례 스매싱 공격을 성공하며 21-11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여자복식 결승에 나선 하정은(대교운높이)-김민정(전북은행)은 후지 미즈 키-카이와 레이카(일본)에 0-2(6-21 14-21)로 완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독일 대회를 마친 남자 대표팀은 영국 버밍엄으로 이동해 8일부터 치러지는 2011 전영 오픈 프리미어 슈퍼시리즈에 출전한다.

하지만 이용대-정재성은 2세트에서 17-

17까지 치열한 시소게임 끝에 연속 3점점하

고나서 무너지며 18-21로 패해 승패의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3세트에 나선 이용대-정재성은 관록을 바탕으로 12차례 스매싱 공격을 성공하며 21-11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이용대-정재성 조가 7일 2011 독일오픈 배드민턴 그랑프리 남자복식 결승에서 김기정-김사랑조를 꺾고 금메달을 가져갔다. 오른쪽부터 이용대, 정재성, 김기정, 김사랑. /연합뉴스



이규혁 월드컵 500m 최종 레이스 금빛 질주

이강석 종합순위 1위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맏형' 이규혁(33·서울시청)이 2010-2011 국제빙상경기 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규혁은 7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해렌에서 열린 마지막 8차 대회 남자 500m 디비전(A부 리그) 2차 레이스에서 35점0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추가한 이강석은 500m 종합 순위에서도 84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규혁은 745점으로 2위에 올랐고 일본의 가토 조지가 671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규혁은 1000m 종합 순위에서도 522점

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여자 500m 2차 시기에서는 이상화(22·서울시청)가 38점4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120점의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얻은 이상화는 종합 순위에서 875점으로 2위에 랭크됐다.

이 부분 종합 1위는 500m 2차 시기에서 금메달을 딴 독일의 앤나 울프(1190점)다.

이강석, 이규혁 등은 10일부터 독일 인체에서 열리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날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추가한 이강석은 500m 종합 순위에서도 84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규혁은 745점으로 2위에 올랐고 일본의 가토 조지가 671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규혁은 1000m 종합 순위에서도 522점

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여자 500m 2차 시기에서는 이상화(22·서울시청)가 38점4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120점의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얻은 이상화는 종합 순위에서 875점으로 2위에 랭크됐다.

이 부분 종합 1위는 500m 2차 시기에서 금메달을 딴 독일의 앤나 울프(1190점)다.

이강석, 이규혁 등은 10일부터 독일 인체에서 열리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날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추가한 이강석은 500m 종합 순위에서도 84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규혁은 745점으로 2위에 올랐고 일본의 가토 조지가 671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규혁은 1000m 종합 순위에서도 522점

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여자 500m 2차 시기에서는 이상화(22·서울시청)가 38점4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120점의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얻은 이상화는 종합 순위에서 875점으로 2위에 랭크됐다.

이 부분 종합 1위는 500m 2차 시기에서 금메달을 딴 독일의 앤나 울프(1190점)다.

이강석, 이규혁 등은 10일부터 독일 인체에서 열리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날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추가한 이강석은 500m 종합 순위에서도 84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규혁은 745점으로 2위에 올랐고 일본의 가토 조지가 671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규혁은 1000m 종합 순위에서도 522점

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여자 500m 2차 시기에서는 이상화(22·서울시청)가 38점4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120점의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얻은 이상화는 종합 순위에서 875점으로 2위에 랭크됐다.

이 부분 종합 1위는 500m 2차 시기에서 금메달을 딴 독일의 앤나 울프(1190점)다.

이강석, 이규혁 등은 10일부터 독일 인체에서 열리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날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추가한 이강석은 500m 종합 순위에서도 84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규혁은 745점으로 2위에 올랐고 일본의 가토 조지가 671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규혁은 1000m 종합 순위에서도 522점

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여자 500m 2차 시기에서는 이상화(22·서울시청)가 38점4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120점의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얻은 이상화는 종합 순위에서 875점으로 2위에 랭크됐다.

이 부분 종합 1위는 500m 2차 시기에서 금메달을 딴 독일의 앤나 울프(1190점)다.

이강석, 이규혁 등은 10일부터 독일 인체에서 열리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날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추가한 이강석은 500m 종합 순위에서도 84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규혁은 745점으로 2위에 올랐고 일본의 가토 조지가 671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규혁은 1000m 종합 순위에서도 522점

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여자 500m 2차 시기에서는 이상화(22·서울시청)가 38점4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120점의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얻은 이상화는 종합 순위에서 875점으로 2위에 랭크됐다.

이 부분 종합 1위는 500m 2차 시기에서 금메달을 딴 독일의 앤나 울프(1190점)다.

이강석, 이규혁 등은 10일부터 독일 인체에서 열리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날 월드컵 시리즈 포인트를 추가한 이강석은 500m 종합 순위에서도 84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규혁은 745점으로 2위에 올랐고 일본의 가토 조지가 671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규혁은 1000m 종합 순위에서도 522점

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여자 500m 2차 시기에서는 이상화(22·서울시청)가 38점4